The
미소짓게

친절한
성모씨

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홍보팀

더 행복한 대전성모병원을 만드는 당신은 친절한 성모씨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은 사랑을 드리고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5년에도 더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가는 친절한 성모씨가 많이 탄생되길 기대해 본다.

아름다운 간호를 실천하는 82병동!

82병동

홍은영 선생님에게 화장실에 가기 위해 도움을 하루 열 번 이상 요청해도 찡그리는 표정 없이 뒷일을 처리해주는 모습을 보며, 환자의 손발이 되어준다는 말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82병동 간호사님들은 보여주기 위한 선행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82병동 간호사님들과 파트장님!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정성을 다해 치료해 주십니다

안과 강승범 교수

안과 강승범 교수님께 칭찬의 글을 남깁니다. 저는 교수님의 훌륭한 의술 덕분에 치료가 잘 되었습니다. 늘 친절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환자에게 정성을 다하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눈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눈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는 능력자로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픔도 잊게 해주셨습니다

영상의학팀 명노수 파트장

저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환자입니다. 얼마 전 엑스레이 검사를 받으러 촬영실에 갔는데, 명노수 선생님께서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아픔도 잊은 채 무사히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촬영실 밖에까지 나와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병원에 이런 좋으신 분이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고 봉사정신으로 근무에 임하시는 명노수 선생님을 칭찬 직원으로 추천합니다.

81병동 채수연 간호사

채수연 간호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서비스직에 종사를 해서 고객 상대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힘들어도 웃어야 하고 짜증내는 고객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어야 하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81병동 간호사님들 모두 친절했지만 한결같이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채수연 간호사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몸이 아픈 환자에게 말 한 마디 건넬 때에도 환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감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하는 간호사님의 모습 덕분에 많은 환자분들이 좋은 에너지를 받아 기운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꼭 칭찬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결같이 친절하신 채수연 선생님!